

〈붙임2〉 소비자 주의사항

□ 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국내 A/S(사후관리서비스)가 어려우므로 신중히 구매한다.

-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은 브랜드별(제품별)로 품질보증 및 A/S 정책에 차이가 있어 국내 A/S가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제품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□ 국가별 전기사양이 달라 국내에서 제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.

-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은 국내 전기사양*(정격전압 및 주파수)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* 한국의 정격전압은 220V, 상용 주파수는 60Hz임.

□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은 반품 과정이 복잡하고, 해외 반송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
- 초기 불량, 부품 누락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반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, 해외 쇼핑몰로 반송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 사전에 반품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.
- 또한, 배송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제품을 수령한 경우 국내 주소지에서 제품을 수령한 이후에는 배송대행지를 통한 반송이 불가하거나 배송대행 업체에서 반송을 대행하더라도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므로 구매 전 반품 관련 정보 탐색이 필요하다.

□ 전자제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모델별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모델별 주문 수량에 유의한다.

- 동일 모델의 전자제품을 2대 이상 동시에 해외직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통관 과정에서 별도의 승인·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인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 있어 모델별 주문 수량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.

* 해외쇼핑몰은 통관 등 관련된 국내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, 통관 문제 발생 시 온전히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.

※ 전자제품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'1372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)'에,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'국제거래 소비자 포털(crossborder.kca.go.kr)'에 도움을 요청한다.